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법 및 착용 경향에 관한 연구

박순천[†] · 김은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Scarf Expression Ways and Trend in Modern Fashion

Soon-Chun Park[†] and Eun-Sil Kim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2005. 4. 26. 접수 : 2005. 7. 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variety winding ways for scarf and to know the trends of scarf expression methods with seeing how to affect these ways on recent fashion. Investigating for scarf's concept and feature through theory records and looking for variety scarf expression ways were done for this study. And then The photo data of fashion magazines from s/s 2000 to s/s 2005, focusing on the divided scarf expressions, were analyzed. The frequencies of scarf expression are like this; decorating on the neck(60%), decoration on the shoulders(18%), decorating on the head(10%), etc(9%), using for accessories(3%). Decorating on the necks is shown lasting ways. Also recently the methods breaking the established concepts - the mixing with two ways and the practical using scarf as a part of clothes - have a tendency to increase steady.

Key words: scarf expression (스카프 연출 법), the neck decoration(목에 장식하는 법), shoulders decoration(어깨에 장식하는 법), head decoration(머리에 장식하는 법), using for accessories(액세서리로 활용하는 법).

I. 서론

최근 의복의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액세서리에 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액세서리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으며, 패션코디네이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패션 액세서리 중에서도 스카프(Scarf)는 다양한 연출법에 따라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으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패션 소품이라 할 수 있다.

스카프란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며 머리에 감싸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써 여성에게 있어서 그 어느 시대에도 유행과 관계없이 애용되는 필수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패션 소품이며, 각각의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자유롭게 착용하고,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내고 연출하는 아이템¹⁾인 것이다.

이 논문은 2004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sep1220@yahoo.co.kr

¹⁾ Charlotte Mankey Calasbetta, Ph.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books, 1998), p. 480.

최근에는 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재의 스카프가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스카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스카프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와 스카프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스카프 연출법과 착용 경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카프의 다양한 연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연출법이 최근 패션에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스카프 연출 경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스카프의 개념과 특성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고찰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둘째, 스카프의 다양한 연출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이렇게 분류된 스카프 연출 유형을 중심으로 패션잡지 「Mode et Mode」, 「Gap Collections」, 「Book Moda」를 중심으로 2000년 S/S컬렉션부터 최근 2005 S/S 컬렉션까지 사진자료를 분석하여, 패션 스카프의 착용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시기는 컬렉션을 중심으로 1년 단위로 하되,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와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패션을 모두 포함시켜 시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카프의 개념

현재 우리가 스카프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몸을 치장하는 장식물로 알려져 왔다. 스카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이나 방한의 목적으로 목, 어깨 또는 머리에 두르는 울, 실크, 레이스 등의 재료로 만든 길고 넓은 띠를 말한다. 둘째, 양끝아 늘어진 크라바트(Cravat)의 넥타이를 말한다²⁾. 셋째, 스카프란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쓰는 등 장식과 실용을 겸한 복도리의

일종이다. 넷째, 어깨부터 반대편 힘까지 대각선으로 몸에 걸쳐 허리에 감는 천이나 어깨에 두르는 장식적인 새쉬(Sash-장식띠)이다. 이렇듯 사전적 의미로 스카프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어원을 살펴보면 프랑스어의 에스카르프(escarpe, 장식띠 또는 멜빵)에서 발전한 에샤크렙프(escrèppe, 순례자의 짐보따리 또는 지갑)에서 파생되었다³⁾고 한다.

스카프의 기원은 넥타이의 원래 이름인 크라바트의 변형으로 보여진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남성들은 셔츠 앞을 덮어 걸쳐 착용했던 스카프 즉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 이때 뻗뻗하고 높은 셔츠 칼라가 지금의 셔츠와 같은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로 변화되면서 크라바트는 점차 지금 형태의 타이로 대체되었고, 수 십 가지 다양한 형태들은 사라지고 몇 가지 방법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닝코트(Morning Coat)에 매는 아스코트 타이(Ascot Tie)와 같은 방법으로, 첫 단추를 풀고 셔츠 안에 빼었던 것이 지금의 스카프이다⁴⁾.

2. 스카프의 변천

스카프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장신구의 하나로서 패션에서 자기 연출을 위해 이용한다. 이러한 스카프의 장식적인 역할은 복식의 발달과 함께 변천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머리를 깎고 가발(Wig)이나 머리 수건을 접어 엮은 커치프(Kerchief)를 착용하였는데, 이때 왕이나 여왕이 쓴 두건의 형태를 클래프트(Klaff)라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남녀 공용의 길쭉한 히마티온을 방한의 목적으로 키톤이나 페플로스 위에 봄 전체를 감싸듯이 어깨에 걸쳐서 악천후나 삼을 당할 때 머리에 쓰는 습관이 있었다.

중세 복식에서는 비잔틴 복식에서 베일(Veil)을 사용하였다. 6C경 사라센 족이 동방에서 서유럽으로 침입하여 사라센 의복이 비롯되어 여자는 튜닉 위에 대형의 천으로 머리카락과 몸을 완전히 뒤덮기도 하였다⁵⁾. 이는 이슬람교의 상징으로 전반적으로 소박하

²⁾ Ibid., p. 480.

³⁾ Lois Martin,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1994), p. 14.

⁴⁾ <http://www.cambridge.co.kr>

⁵⁾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서양복식사* (형실출판사, 1987), pp. 87-99.

였으며 베일 모양은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었다. 11~12C경 로마네스크 복식에서 팔라가 감소화된 베일을 머리에 덮어쓰고, 쇼울(showl)도 착용하였다.

근세 복식에서는 16세기에 게이블 후드(Gable hood)가 유행하여 뺏뺏한 프릴이 달린 흰색이나 금색의 천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서 기혼 여성은 이를 쓰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지금의 타이 형태의 원주였던 크라바트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근대 복식에서는 1840년대에 붕 스카프를 목에 두 번 두르고 헐렁하게 앞에서 묶음으로써 스카프 핀으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⁶⁾.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06년 단발 퍼머넌트(Permanent) 스타일이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가벼운 실크 천을 머리에 묶는 스카프가 착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사이즈가 큰 정방향 실크 스카프가 유행하게 되었다. 군인들이 집에 보낸 선물로서 인기있는 아이템이었다.

또한 이때에는 스카프에 “디자이너 라벨”을 부착시켜 과시적인 표시가 되기도 하였다.⁷⁾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은 머리 또는 목에 베라(Vera)나 푸치(Pucci)의 사각형 스카프를 단정히 두르고, 핸드백 손잡이에는 에르메스(Hermes) 스카프를 묶기도 하였다. 히피족들은 성을 불문하고 유행이 지난 옷을 입거나 피터 막스(Peter Max)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유행을 선도하였다⁸⁾.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스카프가 의복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한 것에 반해, 차츰 독보적인 존재로서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Ⅲ. 패션 스카프의 연출법

스카프를 멋지게 연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피부색과 이미지, 평소 잘 입는 의상 스타일에 맞춰 골라야 한다. 평범한 옷차림을 센스 있는 스타일로 바꿔주는 스카프 연출은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얼굴형이나 체형에 따라 어울리도록 스카프를 잘 연출하여야 한다.

1. 목둘레를 장식하는 연출법

1) 타이(Tie) 형태의 연출법

스카프를 이용해 타이처럼 묶는 방법이다.

〈그림 1〉 (a)형은 사각형 스카프를 1/4폭으로 길게 접은 다음, 한쪽 끝을 10cm 내외로 남기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매듭을 만든다. 그 다음 매듭을 묶지 않은 쪽을 매듭 안으로 집어넣고 정리하는 방법이다.

(b)형은 사각의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양끝에서 두 번 접은 다음, 목에 한 바퀴 두른 후, 앞쪽에서 묶어 리본형을 만들어 연출하는 방법이다.

(c)형은 보통 남성들이 정장에 넥타이를 맬 때 쓰이는 방법이다.

(d)형은 스카프를 띠 형태로 접어 앞쪽에서 한번 묶은 다음, 양 끝을 각각 양쪽으로 두른 다음 뒤에서 묶는 방법이다.

(e)형은 띠 형태로 접은 스카프를 앞에서 교차하여 끈 다음, 양쪽을 어깨위로 올리면서 뒤쪽에서 매듭을 묶는 방법이다.

(f)형은 띠 형태로 접은 스카프를 가운데를 접어 고리 형태로 만든 다음, 한쪽에서는 중심을 잡고 한쪽에서는 꼬기를 반복하면서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카프를 목에 둘러 한쪽 고리에 다른 한쪽 끝을 집어넣고 매듭진다.

2) 카우보이(Cow Boy) 형태의 연출법

〈그림 2〉 (a)형은 스카프를 띠처럼 접어서 목에 두른 후 매듭을 묶어 양쪽 끈을 잘 만겨준다. 이때 한쪽 끈은 목의 앞부분을 향하도록, 다른 쪽 끈은 목의 뒷부분을 향하도록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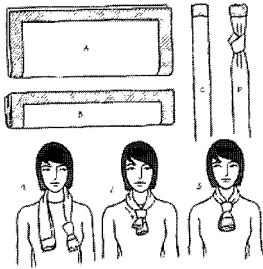
(b)형은 스카프를 세모의 형태로 본인 목에 맞는 적당한 넓이로 길게 접어 띠같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목에 두르고 뒷목에서 묶어준다.

(c)형은 (b)형의 응용으로 세모로 접은 스카프를 목에 두른 후 양 끝은 앞 목에서 매듭짓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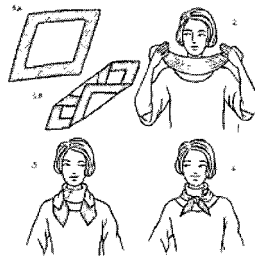
⁶⁾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s Sons, 1958), p. 296.

⁷⁾ 차민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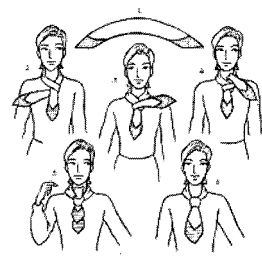
⁸⁾ Andrew Baseman,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1989),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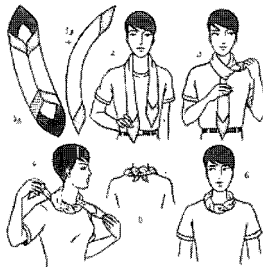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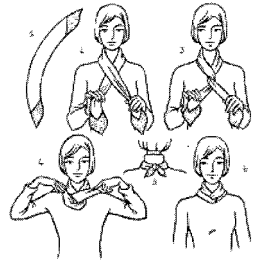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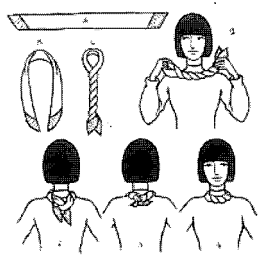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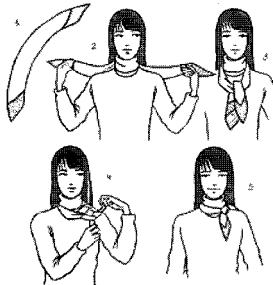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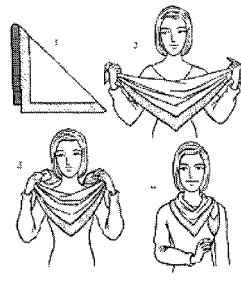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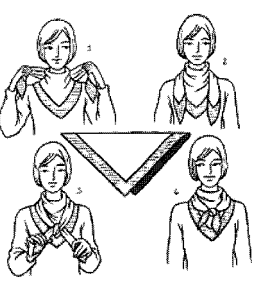
<그림 1> 타이형의 연출법.



(a)



(b)



(c)

<그림 2> 카우보이형의 연출법.

3) 길게 늘어뜨리는 연출법

얼굴이 크고 목이 짧은 사람들의 경우, 목에 붕대 처럼 스카프를 묶고 있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므로 이렇듯 스카프를 느슨하게 아래쪽으로 묶거나 아니면 그냥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날리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연출법은 지친 느낌을 주는 효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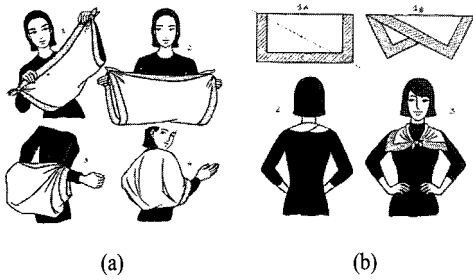
숄 형태의 스카프로, 어깨에 걸침으로써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주는 연출법이다. <그림 3> (a)형은 스카프를 반으로 접고 양끝을 서로 묶어 고리형태를 만든 다음, 각각의 고리에 팔을 넣어 어깨에 걸치는 방법이다. (b)형은 커다란 정사각형 스카프를 사선으로 접어 어깨에 걸친 후 양쪽 끝 부분을 모아서 묶는 방법이다.

2.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

1) 어깨에 걸치는 연출법

2) 케이프 형(목까지 덮는 형)

케이프 형은 머리를 덮고 목과 어깨까지 덮는 형이다.



<그림 3> 어깨에 걸치는 연출법.

3.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

커다란 정사각형 스카프를 삼각형으로 접어 이것을 머리에 완전히 덮어씌운 다음 뒤쪽 매듭 부분에서 끝자락을 꼬아 돌돌 감거나 머리띠를 하듯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방법이다.

1) 티번형의 연출법

삼각형의 스카프를 머리에 얹고 자락을 뒤로 돌려 다시 앞으로 오게 한 뒤 이마 윗부분에서 매듭을 짓는다. 또는 기본적으로 두건을 앞이마에 맞춰 잘 접은 상태에서 뒷머리와 함께 묶어주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 리본으로 묶을 수도 있고 멋스럽게 늘어뜨릴 수도 있다.

2) 머리띠형의 연출법

스카프를 띠처럼 접어서 머리띠처럼 머리에 두르고 뒷 목에서 묶는 방법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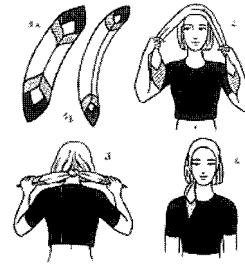
4. 액세서리 활용법

스카프를 띠처럼 접어서 의복에 장식적으로 묶거나 가방과 같은 패션 소품에 손잡이로 묶는 등 다양한 액세서리로서 활용하는 방법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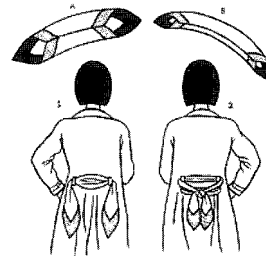
IV. 패션 잡지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

1.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벵타이형, 카우보이형, 늘어뜨리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벵타이형은 스카프 자체를 목에 묶어서 연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정장에 착용하는 남성용 벵타이가 여성복식에 응용되고 있다.



<그림 4> 머리띠형의 연출법.



<그림 5> 액세서리 활용법.

<그림 6>은 스카프를 리본형으로 목에 장식한 예이다. 이 경우에, 의복과 모자의 색상과 문양이 화려하기 때문에 스카프는 단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다. 또한 <그림 7>은 근세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남성의 크라바트(cravat)를 응용한 스카프로서 형태적으로 훔치기 스커트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 8>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벵타이로서, 이러한 남성적 이미지는 중절모와 가죽 장갑의 이미지와 어울려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되고 있다.

또한 <그림 9>는 카우보이형의 스카프로서, 케쥬



<그림 6> Kenzo. 「Gap Collections」, 2004~2005 F/W.



<그림 7> Louis Vuitton. 「Gap Collections」, 2004~2005 F/W.

얼한 의복과 함께 밝고 강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 10>은 늘어뜨리는 형으로서 이러한 형은 실크와 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2.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

어깨를 장식하는 연출법은 어깨에 솔처럼 길지는 연출법과 망토와 같은 형태의 케이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1>은 탄트 체크 문양의 스카프를 솔처럼 걸치는 연출법이며, <그림 12>는 모피 소재의 스카프를 어깨에 걸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그림 13>에서 처럼 쉬폰과 같은 미치고 하늘거리는 소재를 이용하여 어깨에 걸침으로써 우

아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케이프형으로 어깨를 장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케이프는 어깨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감싸는 형태로 <그림 14>에서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이 디자인한 중세풍의 복식으로 어깨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감싸는 레드로풍의 케이프가 보여지고 있다.

<그림 15>는 또한 망토 형태의 케이프로서 의복의 색상과 유사색상으로 매치되어 전체적인 의상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

3.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터빈형의 연출법과 머리띠형의 연출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렸듯 머리에 장식하는 헤드 스카프는 여성들의 헤드 커버링 중에서 가장 단순하며 가장 유동성 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헤르메스(Hermes), 구찌(Gucci),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크 스카프는 1960년대에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에 의해 디자인되었던 강렬한 색상의 실크 스카프에 바탕을 두고 있다⁹⁾.

<그림 16>에서는 장 폴 고틀리에에 의해 쓰여진 터빈형의 스카프로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감싼 다음 이마 윗부분에서 매듭을 묶은 형이며, <그림 17>은 앞 이마를 감싸고 뒷 목에서 매듭을 묶은 경우이다. 이 경우, 딱딱한 재킷과 흘러내리는 머리와 스카프는 대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레드 계열의 스카프로 액센트



<그림 8> Givenchy. 「Mode Cacharel. et Mode」, 2001~ 「Gap Collections」, 2002 F/W.



<그림 9> 「Gap Collections」, 2003 S/S.



<그림 10> Emporio Armani. 「Mode et Mode」, 2004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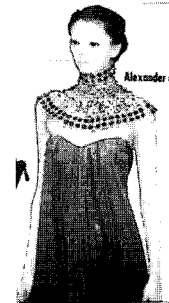
<그림 11> Junya Watanabe Comme des Garcons. 「Mode et Mode」, 2004~2005 F/W.



<그림 12> Louis Vuitton. 「Mode et Mode」, 2004~2005 F/W.



<그림 13> Hanac Mori. 「Book Moda」, 2002~2003 F/W.



<그림 14> Alexander McQueen. 「Mode et Mode」, 2004~2005 F/W.



<그림 15> Channel. 「Gap Collections」, 2001~2002 F/W.

⁹⁾ Colin McDowell,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and Hudson, 1992), p. 130.



〈그림 16〉 Jean Paul Gaultier. 「Mode et Mode」, 2000 S/S.



〈그림 17〉 Scherrer. 「Gap Collections」, 2001- 2002 F/W.



〈그림 20〉 Emanuel Ungaro. 「Mode et Mode」, 2002 S/S.



〈그림 21〉 Cacharel. 「Mode et Mode」, 2003 S/S.

를 줌으로써 활동적이고 긴장감을 주는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들은 모두 에스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림 18〉은 머리띠형 스카프의 예로서, 이처럼 머리에 띠처럼 내고 뒷부분에서 매듭을 준 후 흘러내리도록 하기도 하며, 〈그림 19〉에서처럼 머리를 묶는 스타일로 띠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의복과 색상과 소재를 동일하게 매치시켜 유사성을 있도록 코디네이션되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색상과 소재의 매치는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며, 안정감 있는 코디네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4. 액세서리 활용법

스카프를 다양한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림 20〉과 〈그림 21〉에서는 스카프를 허리에 벨트처럼 매어 액세서리로 연출하고 있다. 이때 〈그림 20〉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임에도 불구하고

의상도 화려하기 때문에 자칫 스카프가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그림 21〉은 블루 계열의 단색의 의상에 매치된 스트라이프 스카프는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림 20〉은 실크 소재로 이브닝 드레스와 분위기가 매치되고 있으나, 〈그림 21〉은 면 소재로 활동적인 분위기와 매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장패션에는 실크나 나염류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캐주얼 패션에는 면소재나 편물류가 어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그림 22〉는 핸드백 액세서리로 스카프가 응용된 경우이며, 〈그림 23〉은 가방의 끈으로 스카프가 응용된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의복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기타

위의 연출법이 서로 믹스되어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두 가지 이상으로 연출된 경우나, 스카프의 본래의 형



〈그림 18〉 Chanel. 「Gap Collections」, 2002- 2003 F/W.



〈그림 19〉 Jean Paul Gaultier. 「Mode et Mode」, 2005 S/S.



〈그림 22〉 Celine. 「Mode et Mode」, 2003 S/S.



〈그림 23〉 Cacharel. 「Gap Collections」, 2003 S/S.



〈그림 24〉 Stella McCartney, 2004 S/S. 〈그림 25〉 Jean Paul Gaultier, 2004 S/S. 〈그림 26〉 Jean Paul Gaultier, 2002 S/S.

태에서 벗어나 의복의 일부분으로서 장식되는 경우, 스카프의 착용방법이 기존의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 새롭게 연출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

〈그림 24〉는 스카프가 머리를 덮고 늘어뜨려지는 후드 스타일의 변형으로, 기존의 후드 스타일은 옷에 부착된 스타일이지만, 이는 스카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 25〉는 옷의 일부로 인식된 스카프로써 스카프의 기본 개념조차 흔들리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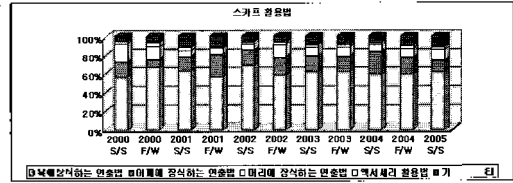
〈그림 26〉은 남성용 정장 넥타이로서 넥타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즉 맨다라는 기본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는 넥타이를 목에 걸쳐 늘어뜨림으로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해체주의적인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V. 패션 스카프의 착용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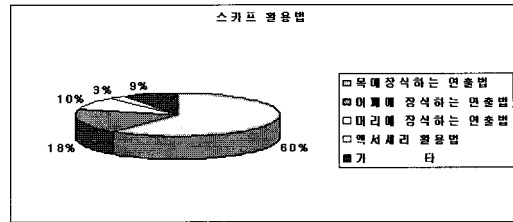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분류된 연출 방법을 중심으로 패션 잡지에서 스카프가 착용된 사진을 발췌한 후, 각각의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췌한 사진은 총 932장으로, 이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착용 경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이는 년도별 연출법의 빈도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27〉은 년도별 연출법의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28〉은 전체적으로 스카프 연출법에 따른 분포율을 3차원의 워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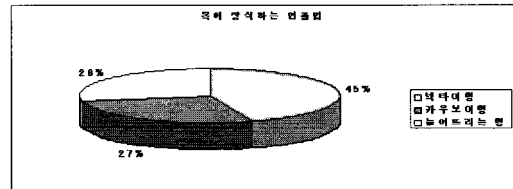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스카프 연출법에 따른 빈도수는 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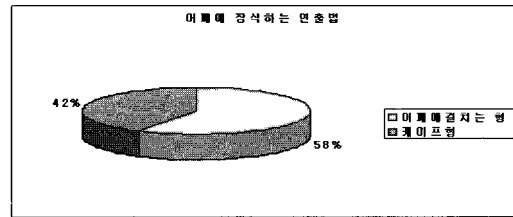
〈그림 27〉 년도별 연출법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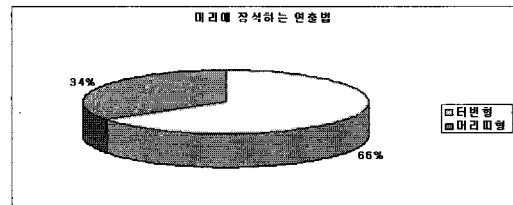
〈그림 28〉 스카프 연출법에 따른 분포율.



〈그림 29〉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의 분포율.



〈그림 30〉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의 분포율.



〈그림 31〉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의 분포율.

장식하는 연출법(60%),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18%),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10%), 기타(9%), 액세서리 활용법(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카

〈표 1〉 년도별 연출법의 빈도수

(단위: 빈도(%))

연출법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		액세서리 활용법	기타	합계
	넥타이형	카우보이형	늘어뜨리는형	어깨에 걸치는 형	케이프형 (목까지 덮는형)	터번형	머리띠형			
2000 S/S	21(28.3)	15(20.3)	6(8.1)	9(12.2)	3(4.1)	10(13.5)	4(5.4)	2(2.7)	4(5.4)	74
2000 F/W	23(32.4)	16(22.5)	8(11.3)	4(5.6)	3(4.2)	6(8.5)	3(4.2)	3(4.2)	5(7.0)	71
2001 S/S	17(33.3)	10(19.6)	5(9.8)	6(11.8)	2(3.9)	2(3.9)	1(2.0)	2(3.9)	6(11.8)	51
2001 F/W	16(30.2)	8(15.1)	6(11.3)	8(15.1)	5(9.4)	2(3.8)	1(1.9)	1(1.9)	6(11.3)	53
2002 S/S	22(26.8)	8(9.8)	26(31.7)	10(12.2)	4(4.9)	3(3.7)	2(2.4)	2(2.4)	5(6.1)	82
2002 F/W	20(20)	20(20)	18(18)	12(12)	8(8)	8(8)	5(5)	2(2)	7(7)	100
2003 S/S	24(27.6)	18(20.7)	12(13.8)	8(9.2)	7(8.0)	5(5.7)	3(3.4)	2(2.3)	8(9.2)	87
2003 F/W	24(27.3)	12(13.6)	18(20.5)	7(8.0)	8(9.1)	6(6.8)	3(3.4)	2(2.3)	8(9.1)	88
2004 S/S	25(21.7)	18(15.7)	24(20.9)	15(13.0)	14(12.2)	5(4.3)	3(2.6)	2(1.7)	9(7.8)	115
2004 F/W	30(30.9)	12(12.4)	15(15.5)	10(10.3)	8(8.2)	7(7.2)	2(2.1)	3(3.1)	10(10.3)	97
2005 S/S	31(27.2)	17(14.9)	22(19.3)	8(7.0)	7(6.1)	7(6.1)	5(4.4)	3(2.6)	14(12.3)	114
합계	253(27.1)	154(16.5)	160(17.2)	97(10.4)	69(7.4)	61(6.5)	32(3.4)	24(2.6)	82(8.8)	932

프의 본래 목적인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넥타이형(27.1%), 늘어뜨리는 형(17.2%), 카우보이형(16.5%)순으로 나타나 목에 묶는 스타일인 넥타이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어깨에 걸치는 형(10.4%)이 케이프형(7.4%)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터번형(6.5%)이 머리띠형(3.4%)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기타의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의 형이 믹스된 연출법이나 기존의 관념을 해체시킨 연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맞추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VI. 결 론

현대 패션에서 스카프는 의복을 보다 세련되고 기

성 있게 연출할 수 있는 포인트 역할을 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즉 현대 패션에서 스카프의 역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서 패션의 트렌드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스카프의 연출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연출법이 현대 패션에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개성 있는 스카프 연출법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스카프 연출법은 목둘레를 장식하는 연출법,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 액세서리 활용법, 그 외의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복 둘레를 장식하는 연출법으로는 넥타이형, 카우보이형, 늘어뜨리는 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어깨에 걸치는 형, 케이프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터번형, 머리띠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패션 잡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카프 연출법에 따른 빈도수는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60%),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18%),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10%), 기타(9%), 액세서리 활용법(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카프의 본래 목적인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목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넥타이형(27.1%), 늘어뜨리는 형(17.2%), 카우보이형(16.5%) 순으로 나타나 목에 묶는 스타일인 넥타이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깨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어깨에 걸치는 형(10.4%)이 케이프 형(7.4%)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머리에 장식하는 연출법은 터번형(6.5%)이 머리띠형(3.4%)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기타의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의 형이 믹스된 연출법이나 기존의 관념을 해체시킨 연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최근 누드러지계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카프 연출법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스카프 착용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자신감 있는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영임 외 공저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김은실 (2004). “의복과 모자의 조형적 관계 분석 및 모자 디자인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희 (2001). *패션디자인 발상*. 서울: 교문사.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1987).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임경순 (1999). “현대 패션코오디네이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만징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디자인 연구.”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seman, Andrew (1989).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Black, J. Anderson and Madge Garland (1997). *세계패션사(A History of Fashion) 1·2*. 윤길순 역. 서울:

자각아카데미.

Calasbetta, Charlotte Mankey, Ph.D.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books.

Cosgrave, Browyn (2000). *Costume & Fashion*. Checkmark Books.

David, Bond (2000). *20세기 패션(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Fairchild Books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Grafton, Carol Belanger (2002). *Shoes, Hats and Fashion Accessories-A Pictorial archive (1850-1940)*.

Hopkins, Susie (1999). *The Century of Hats : Headdress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 Aurum.

Lavcr, James (2001). *Costume and Fashion-A Concise History*. Thames & Hudson.

Martin, Lois (1994).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McDowell, Colin (1992).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and Hudson.

Mendes, Valerie and Amy De La Haye (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Aurum Thames & Hudson.

Milbank, Caroline Rennold (2002). *The Couture Access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ayne, Blanche (1997). *복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서울: 까치.

Watson, Linda (2003). *20th Fashion*. Carlton Books.

Wilcox, R. Turner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s Sons.

<http://www.cambridge.co.kr>

<http://www.fashionstudy.com>

<http://www.firstvicwkorea.com>

<http://www.philipltreacy.com>

<http://www.vogue.co.kr>

「Book Moda」, 2000 S/S-2005 S/S

「Gap Collections」, 2000 S/S-2005 S/S

「Mode et Mode」, 2000 S/S-2005 S/S